

# 유통업계 설 특수 잡았다

### 고가품 인기... 작년보다 선물세트 매출 15~40%가량 늘어

지역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들이 명절특수를 제대로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 선물세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지난해보다 고가 선물세트의 판매도 두드러졌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에 비해 18.9% 증가했다.

전통적인 선물세트부터 건강 관련 제품까지 매출이 골고루 늘었다.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주류 27.0%, 건강식품 23.0%, 정육 22.0%, 수산 16.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의 한우갑비세트는 지난해보다 313.0%나 잘 팔리면서 명절 인기선물세트로 자리 잡았다.

신세계백화점도 전체 점포를 기준으로 명절 선물 매출이 작년에 비해 39.7%나 뛰었다.

특히 '왕특대 굴비'와 '대물(大物) 랍스터', '목장한우 스페셜' 등 한정수량으로 나온 고가 선물세트가 모두 팔렸다.

백화점들은 경기회복으로 개인소득이 살아나고, 기업들의 구매가 많아진 것이 매출증가의 원인이란 분석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국 11개 점포에서 거둔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2.9%나 늘었다.

고가의 홍삼 매출이 75.4%나 늘었으며 명품 친환경 과일세트와 한우 신선육 세트 매출이 작년보다 각각 50.4%, 41.4%나 증가하는 등 프리미엄 상품군의 판매가 활발했다.

대형마트에서도 비교적 값 비싼 선물세트들이 잘 팔리면서 매출 실적이 좋았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달 4~11일 8일간의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갈비·정육세트가 20.0%나 잘 팔렸다.

홈플러스도 지난해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의 선물 매출이 기존 점포를 기준으로 작년보다 28% 증가했다. 특히 한우·안심 정육 혼합세트 판매가 112%나 늘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3일간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작년 설에 비해 16%가량(신규 점포 포함)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연휴가 짧아 선물세트가 잘 팔린 것 같다"면서 "고가의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실용형 생활용품 등 저가의 선물세트 판매도 좋아 소비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남뉴스



가장 오래된 프라이드를 찾아라

기아자동차는 가장 오래된 프라이드를 찾는 '프라이드 패밀리 이벤트'를 다음달 7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서 진행. 참가자 및 참가자들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기아차 제공)

영산포·정남진장흥·담양월산·광양원협

## 전국 농협 실적 평가서 1위

농협 전남지역분부는 "2009년 전국 조합별 업적평가 결과 영산포농협(조합장 박정현)과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고희천), 담양월산농협(조합장 국인홍), 광양원협(조합장 방원혁) 등이 각각 평가 그룹별 1위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산포농협은 경제 및 신용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해 농촌형 3그룹에서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월산농협은 상호금융대출 확대, 특색작물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안정

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전국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 미곡처리장의 적자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호금융예수금이 14%, 경제사업이 28% 성장하는 등 4년 연속 10억 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원협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학교 및 기업급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에 큰 축을 담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재래시장 내달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오는 3월 말부터 재래시장 점포와 연간 매출액 9천60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용카드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대상 가맹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의 점포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현행 2.0~2.2%에서 1.6~1.9%로 낮아진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2.3~3.6%에서 2.0~2.4%로 인하된다.

## 설 선물 구입 비용 지역별 차이

### 세트당 수도권 2만7천원·호남 2만4천원

소비자들이 설을 맞아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쓴 비용이나 선호하는 제품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69개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를 판매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선물세트 한 개를 사는데 쓴 비용이 구매지역별로 최고 6천원까지 차이

가 났다.

설 선물세트 개당 평균 구입비용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2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이 2만5천원, 호남권 2만4천원, 제주도 2만3천원, 영남권 2만1천원 순이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6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생긴 것은 지역에 따라 인기 있는 선물세트

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롯데마트 측은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중고가 선물세트가 많이 팔린 반면 지방에서는 생활용품 세트 등 중저가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다.

롯데마트에서 매출 상위 20위에 오른 선물세트를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수도권에서는 3만원 이상 제품이 20위 내에서 65%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에서는 3만원 미만 제품 비중이 60%에 달했다.

전 지역을 통틀어 롯데마트에서 고객들이 선물세트 한 개 구매에 쓴 비용은 평균 2만5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남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운수·철강·전기전자업종

### 기술적 매매에 치중해야

최근 국내 유통성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는 달리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 영역에 진입하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장차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KOSPI 1,600선 부근에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투신권의 매수 여력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지수펀드(ETF) 물량을 제외한다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아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메리트에 기반한 국내 유통성의 주식시장 유입 추세는 지수 하락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 및 실적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다소 희석되는 분위기이고, 지수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또다시 펀드 환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등락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당분간 KOSPI가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단(1,640P 부근)으로 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투자 대상의 가격메리트이다. 최근의 유럽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투자심리는 이전보다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이번 사태로 낙폭이 과도했던 업종이나 종목의 반등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주도주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낙폭이 과도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밸류에이션 및 가격 메리트에 꼼꼼히 살피고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주말까지 중국의 춘절 연휴가 이어지는데, 중국이 글로벌 긴축의 최선봉에 서서 최근 유동성 흡수 대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휴를 포함, 3월 전인대를 전후로 한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춘절을 전후로 변화가 생기면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유동성과 국내 유통성이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제한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기술적 매매에 치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관심 업종으로는 시기적인 특성상 중국 춘절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해 운수·철강, 기계를 비롯하여 전기전자업종 내에서 업종대표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망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청점 (062) 227-9970

호남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951-2422

**헬스킹 기능화**

신발이 아니라 기계를 신는다!

Product Composition

(주) 헬스킹코리아

**아름다운 외관과 고성능 인테리이 곁들여 벵돌타인**

www.fbc.com.kr

TEL : 062-673-9010  
FAX : 010-7606-9002